

景福宮 勤政殿 月臺 欄干石柱像 研究

이성준*

- I. 머리말
- II. 근정전 월대의 배치원리
- III. 난간석주상의 종류와 양식적 특징
- IV. 난간석주상의 제작시기
- V. 맺음말

I. 머리말

경복궁은 조선시대 法宮으로서 1395년(태조 4)에 창건되었고,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270여 년 간 폐허로 남아 있다가 1867년(고종 4)에 재건되었다. 勤政殿은 正殿으로 경복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신하들의 조하를 받거나 정령을 반포하고 때로는 사신을 맞아들이기도 하던 곳이다.

근정전의 기단부 역할을 하는 月臺는 2단의 석축 방형기단으로 조선시대 다른 궁궐에는 없는 난간석이 둘러져 있다. 난간석 위에는 四神을 비롯하여 十二支와 관련된 동물상들이 서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로를 바라보며 한 쌍씩 조각되어 있다. 월대 난간석은 구성과 형태에 있어 조선시대 왕릉과 유사하지만 엄지기둥, 門路柱¹ 등 왕릉에서와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월대 난간석부분의 명칭을 정의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山陵都監儀軌에서 난간석 부분을 분석한 결과 월대에서 석상이 조각된 기둥을 欄干石柱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² 그리고 난간석주 위의 동물상을 欄干石柱像, 기둥은 石柱, 기둥과 난간석주상 사이에서 동물상을 받치고 있는 부분을 座臺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월대 난간석주상의 배치와 편년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³ 월대 난간석주상의 배치형식을 경복궁 전체 조영원리에 적용시켜 재해석하고, 조선시대 기년작 동물상과의 양식비교를 통해 난간석주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II. 근정전 월대의 배치원리

1. 월대의 배치원리

경복궁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거하여 건물의 배치나 전각의 명칭 등이 정해졌는데 음양오행사상, 太極圖說, 천문도, 風水地理 등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⁴ 특히 경복궁 전각의 전체 배치

¹ 『宮闕志』 勤政殿條, “… 月臺上下層有石欄干而門路柱…….”

² 山陵都監儀軌에는 난간석을 이루는 석물들의 종류와 명칭, 크기까지 상세히 적혀있다. 현존하는 最古의 산릉도감 의궤인 『仁王后山陵都監儀軌』(1601년)에서 난간석과 관련된 석물을 石欄干石柱, 童子石, 竹石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1776년)에서는 石柱, 童子石, 竹石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난간석에 대한 圖說이 있는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1800년)와 『洪陵山陵都監儀軌』(1897년)에 있는 欄干石圖에는 欄干石柱(石柱), 童子石柱, 竹石으로 구분하였다. 이 내용을 근거로 근정전 월대 석상의 기둥 역할을 하는 石柱를 欄干石柱라는 명칭으로 사용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석상의 기둥역할을 하는 石柱를 『宮闕志』에서는 門路柱라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기록들을 살펴 본 결과 門路柱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었다.

³ 金元龍, 『李朝石獸彫刻』, 『鄉土서울』12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3.

金元龍, 『韓國美術史 研究』, 일지사, 1989.

李康根, 『景福宮에 관한 建築史의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趙恩廷, 『19·20세기 宮廷 彫刻에 대한 小論』, 『한국근대미술사학』5호,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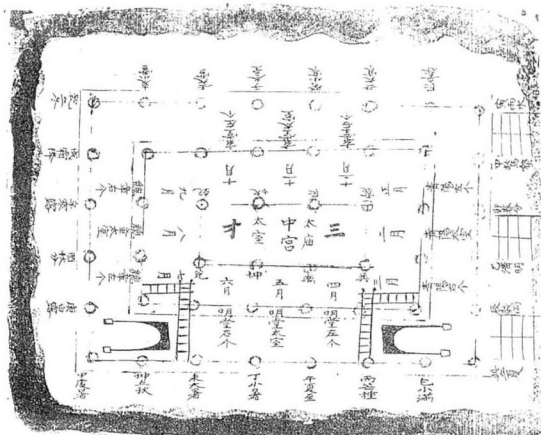
소재구, 『月臺의 石物造形』, 『勤政殿 實測調査報告書』上, 文化財廳, 2000.

⁴ 杉山信三, 『韓國의 中世建築』, 日本 東京: 相模書房, 1984; 金東旭,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건축역사 연구』15호, 건축역사학회, 1998; 李康根, 위의 논문.

에 있어 음양오행사상은 중요한 원리였으며 전각의 명칭은 음양의 조화에 맞춰 명명되었고, 근정전 출입문의 명칭도 이러한 원리에 상응하도록 만들어졌다.⁵ 이것은 ㅍ을 하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천지운행의 질서에 맞게 유도하려는 유교의 天命觀의 정치사상을 경복궁의 배치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고종연간 경복궁이 재건될 때에도 사용되었다.⁶

경복궁 재건 당시의 기록인 『景福宮昌德宮內上樑文』을 살펴보면 배치의 사상적 원리로서 易象(太極·四象·八卦)을 취하여 조선 전기에 비해 易理와 음양오행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건물 배치와 평면계획에 투영시켰음을 알 수 있다.⁷ 金炳冀가 쓴 「勤政門上樑文」에 의하면 “궁실은 모두 주역의 象을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근정전 및 월대의 구성에도 역리가 적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⁸

근정전의 예는 아니지만 경복궁내 건물인 경회루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건물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慶會樓全圖』는 관직에서 물러난 학자가 잊혀져 가는 경회루 건물의 본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지었다는 序文과⁹ 함께 경회루의 평면, 입면 주변상황을 易과 陰陽五行思想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¹⁰



도 1 <慶會樓三十六宮之圖>, 1886, 국립중앙도서관

5 이강근, 『경복궁』(대원사, 1998), pp. 47 - 58에서 재인용 ; 『太祖實錄』四年十月七日(丁酉)條.

6 이강근, 앞의 논문, p. 92.

7 이강근, 앞의 책, pp. 50 - 52에서 재인용.

8 金炳冀, 『勤政門上樑文』“... 宮室蓋取易象 ……”.

9 『慶會樓全圖』는 경회루 공사가 시작되는 해에 지어진 것이다. 『경회루전도』의 저자는 丁學洵으로 적혀 있다. 그에 대해서는 『경회루전도』에 적혀있는 ‘草野臣’이라는 글을 통해 그가 전에 관직을 역임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金東旭, 『慶會樓 - 朝鮮建築과 周易의 原理』, 『건축문화』10호, 건축문화사, 1985.

10 『慶會樓全圖』序 “世傳慶會樓之六六宮 本爲制火而作 乙丑之重建 在於歷年 既久之後 六六禳除之法 有難講明 臣心竊疑之 乃於是歲至月初 躬詣營建所 遍觀基址上柱礎 退而閉門 推究易理 潛思數月 作爲此圖.” 金東旭, 앞의 논문 ; 文化財廳, 『慶會樓 實測調査 및 修理工事報告書』, 文化財廳, 2000 ; 이상해 · 조인철, 『경복궁 경회루의 건축계획적 논리체계에 관한 연구』, 『建築歷史研究』第14卷3號 通卷43號, 建築歷史學會, 2005.

『경회루전도』의 내용 중 건축원리(六六禳除法)를 도설로 풀어낸 〈慶會樓三十六宮之圖〉에서 경회루의 총 칸수를 36칸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며, 왕의 공간 역시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시킨 것이라고 하였다(도 1). 평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 칸은 河圖를 본 뜬 것이라고 하였다.¹¹ 中宮 열다섯 칸은 오행 중 ‘土’를 상징하는데, 하도 가운데에 위치한 토는 생수가 5, 성수가 10으로 중궁 열다섯 칸이라는 수와 일치하여 하도의 ‘土’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 성왕들이 모두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궁성을 건축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옛 성왕들은 모두 궁궐을 짓는데 있어 하늘과 땅의 상을 본뜬 것이 많다. 하나라의 세실은 오실이 있는데, 이는 오행을 본뜬 것이다.’¹²

라고 하여 경회루 건축원리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궁궐 내 건물의 평면이나 세부가 단순히 집을 짓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 질서를 체계 화하고자 했던 易의 논리를 바탕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¹³

경복궁의 배치원리였던 역리를 월대에 적용하면 근정전의 기둥과 난간석주의 수를 통해서 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상월대의 난간석주 16개, 근정전 고주 16개, 하월대 난간석주 20개, 근정전 평주 20개로 근정전의 기둥 수와 월대 난간석주의 수가 36개로 일치하며, 이것은 36괘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역에서 36이라는 수는 역의 모든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수로 곧 우주(하늘)를 상징한다.¹⁴ 근정전을 모든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우주공간으로 만들어 왕을 천자의 지위로 격상시켜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11 『慶會樓全圖』, “...自中宮視之四方各有三重 便是一河圖...”

12 『慶會樓全圖』, “...古聖王 法象之宮 多取象於天地 夏之世室 必有五室者 取象於五行也...”

13 경회루 평면 건축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겹 중심 세 칸은 天地人 ‘三才’를 상징하고, 이 칸을 둘러싼 여덟 기둥은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기본인 주역의 八卦를 뜻한다. 또한 평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 칸은 河圖를 본 뜬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겹은 열두 칸으로 12개월을 말하며, 매 칸마다 네 짝씩 16칸에 달린 64개의 문짝은 64괘를 상징한다. 세 번째 겹은 스무 칸이며, 기둥이 스물 네 개 인데 이는 24方 혹은 24절기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 상해·조인철, 앞의 논문(2005).

14 주역의 卦에는 모두 64괘가 있는데, 그 중 卦를 거꾸로 놓아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不倒轉卦라는 것이 8개 있다. 64卦에서 이 8개의 卦를 빼면 56卦가 남는다. 이 56卦는 28종류의 卦를 각각 한번 뒤집어서 만든 것이므로 하나의 단위 형태를 갖추고 있는 卦의 수는 $8 + 28 = 36$, 즉 36卦가 된다. 36은 모든 역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수로서 36궁은 곧 우주를 상징한다.

근정전을 우주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의도는 월대에 사신상을 배치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四神은 神獸로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형상화하는 상징적인 동물이며, 五行說과도 관련이 깊다.¹⁵ 조선시대 천문 서적인 『天文類抄』에 의하면 하늘을 동방·북방·남방·서방과 中宮으로 나누고, 동물의 모양으로 28宿 별자리를 형상화했다. 각 방향에 따라 蒼龍(靑龍)·白虎·朱雀·玄武를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고, 중앙에는 黃龍을 두어 사신 개념을 보다 자세히 표현하였다.¹⁶ 상월대의 동서남북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중앙의 황룡은 근정전 천정 중앙 보기에 칠조룡 한 쌍을 배치시킴으로서 방위신의 개념을 넘어서 하늘을 상징하는 天界 28宿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복궁 건설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風水地理’이다. 조선시대에 風水地理는 遷都 후보지 결정뿐만 아니라 경복궁의 건물 배치와 방향, 전각 명칭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¹⁷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복궁의 전체 조성 원리는 가장 중심 건물이었던 근정전에도 투영되었으며, 난간석주상의 배치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周易이나 陰陽五行思想, 풍수지리는 조선시대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으므로 그것이 건축의 설계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2. 월대 난간석주상의 배치원형

난간석주상의 배치형식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배속방향에 어긋난 동물과 생략된 동물이 있지만 방위신으로서 십이지가 가진 방향성에 근거하여 해당 동물들을 월대에 배치하였다(도 2). 본고에서는 경복궁의 조성원리였던 역리와 음양오행의 표현으로 재해석하여 배치원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¹⁵ 『淮南子』『天文訓』“可謂五星 東方木也, 其宰太皞 其佐句芒 執而治春, 其神爲歲星 其獸蒼龍 執其音角 其日甲乙, 南方火也, 其宰炎帝 其佐朱明 執顛而治夏, 其神爲熒星,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土也, 其帝黃帝 其左后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爲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金也, 其帝少昊 其佐蓐收 執鉅而治秋, 其神爲太白,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水也, 其帝顛頊 其佐玄冥 執權而治冬, 其神爲辰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

¹⁶ 허균, 『사료와 함께 새로 보는 경복궁』(한림미디어, 2005), pp. 4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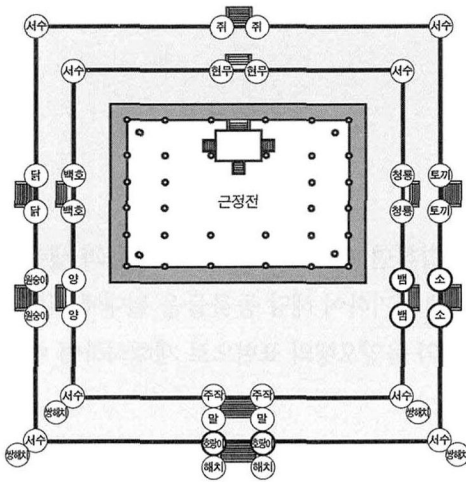
¹⁷ 『太祖實錄』二年 二月 八日(癸未)條; 『太祖實錄』二年 十二月 十一日(壬午)條; 『太祖實錄』三年 二月 十二日(己卯)條; 『太祖實錄』三年 二月 二十三日(癸巳)條; 『太祖實錄』三年 六月 二十七日(乙未)條; 『太祖實錄』三年 十一月 二十五日(辛酉)條; 『太祖實錄』三年 八月 十一日(戊寅)條 등 참조.

월대에 음양오행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상월대 전체를 土, 하월대 북쪽을 水, 하월대 남쪽을 火, 하월대 동쪽을 木, 하월대 서쪽을 金으로 설정하였다. 월대는 기능상 남쪽이 북쪽보다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근정전은 북쪽에 치우쳐 있다. 근정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설정하고, 모서리는 간방으로, 정면은 다른 3면과 달리 계단에도 난간석주상을 배치하고 있는데 ‘南階’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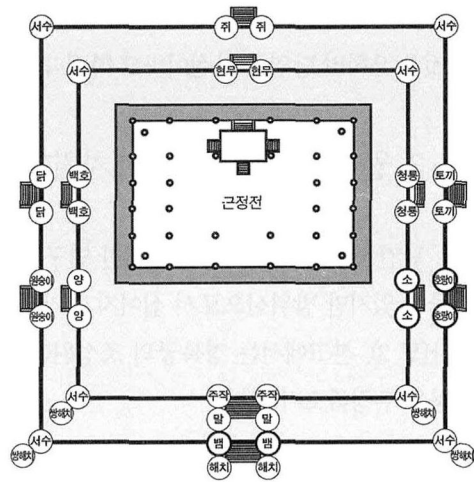
우선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권근의 <天人心性合一圖>에는 음양오행의 발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늘은 陰陽과 五行으로 만물을 化生시키고, 氣로서 형체를 이루니 理가 또한 거기에 주어진다.¹⁸

즉, 음양오행이 생성되기 위해서 우선 하늘의 기운이 필요하며, 이 기운은 음양으로 음양은 다시 오행으로 분화되어 만물을 화생시킨다는 것이다.



도 2 월대의 현재배치



도 3 음양오행을 적용한 배치원형

음양오행을 월대 난간석주상의 배치에 적용하면 첫 번째, 하늘을 상징하는 四神을 각각의 방향에 맞게 상월대에 배치해야 한다. 사신을 상월대에 배치한 것은 음양오행의 기운을 생

¹⁸ 권근, 權德周 譯, 『入學圖說』(乙酉文化社, 1972), p. 27.

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궁궐에 하늘을 대표하는 사신을 배치한 것은 하늘과 왕을 동일하게 여겨 天帝로서 왕의 지위를 격상 시키는 작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음양의 기운은 간방 瑞獸像의 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 양은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에서 정점을 이루며 쇠퇴하고, 음은 남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에서 정점을 이루며 쇠퇴한다. 이 원리를 서수상에 적용시켜 동쪽상은 양으로, 서쪽상은 음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동쪽상과 서쪽상의 세부표현이 달라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하늘의 상징인 사신과 음양의 상징인 서수를 배치하여 오행의 기운이 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세 번째, 오행에 배속된 동물들을 월대에 배치한다. 토에 소와 양, 水에 쥐, 火에 말과 뱀, 木에 토끼와 호랑이, 金에 닭과 원숭이를 배치시켜 음양오행의 원리를 완성시킨다(도 3).

네 번째, 개와 돼지를 생략한다. 〈河圖五行相生之圖〉를 살펴보면 오행은 1~10까지의 생수와 성수로 구성되어 있다. 개와 돼지는 지지의 순서 중 열한 번, 열두 번째로 오행에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생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해치를 하월대 남계에 배치한다. 해치는 재앙을 물리치는 神獸로서 요순시대부터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능력을 지닌 동물로 중국 楚나라 때부터 궁궐 문 앞에 세웠다고 한다. 당시 궁궐 앞에 해치상을 세우고 麈尾라 하여 드나드는 관원들에게 꼬리를 쓰다듬게 하였는데, 그 뜻은 마음속의 먼지를 털어내고 자경하는 마음으로 매사를 처리하게 하려는데 있었다고 한다.¹⁹ 해치상은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 신수의 역할과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능력 등의 상징적인 이유로 근정전 남쪽 첫 번째 계단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1)

난간석주상의 배치를 경복궁의 전체 조성원리였던 역리와 음양오행을 적용하여 배치하면 용, 개, 돼지의 부재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소, 호랑이, 뱀의 위치가 현재 배치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경복궁 중건 때 배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난간석주상은 형태상이 이동될 수 없다.²⁰ 음양오행을 적용한 배치는 난간석주상의 이동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동할 수 없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음양오행만을 적용한 배치로만 볼 수 없다.

¹⁹ 허균,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해치」, 『미술세계』통권 251호, 미술세계, 2005.

²⁰ 월대 남계에는 다른 방향과 달리 2쌍의 난간석주상이 더 배치되어 있는데, 높이가 다른 난간석주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축석과 하엽동자석이 사선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표 1 난간석주상의 배치형식 비교

구분	기존 연구 성과	배치원형 추정
배치원리	방위신으로서 십이지	음양오행
배치순서	- 사신상 배치 - 지지 중 정방향의 속성을 가진 동물 배치 (쥐, 토끼, 말, 닭) - 지지 중 원래의 배속방향에 배치(뱀, 양, 원숭이)	- 사신상 배치 - 오행 중 水, 火, 木, 金 해당되는 동물 하월대 배치 - 土에 해당되는 동물 상월대 배치(소, 양)
사신의 상징	정방향	우주(하늘)
서수의 상징	.	음양의 표현
위치변동	소	토끼가 正東의 속성을 가지도 있기 때문에 동쪽에 배치면서 소가 원래의 자리를 잃고 동남쪽에 이동
	호랑이	소가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음 자리인 正南에 배치
	말	배속방향에 맞게 배치
부재 동물 (개, 돼지)	- 불길한 짐승을 배치하지 않음 - 계단의 위치상 설치될 수 없는 동물을 생략함	〈河圖五行相生之圖〉에서 오행은 1~10까지의 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순서상 11· 12번째 동물이 생략됨
문제점	배치원리에 어긋남	난간석주상의 특성상 위치변동 불가능

3. 난간석주상의 배치 재해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風水地理의 裨補論 중 五行과 관련된 裨補厭勝의 원리를 적용시켜 현재 배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비보염승은 陰陽五行을 이용하여 실제 비보에 응용되었는데, 특히 陰陽論의 조화 원리와 五行論의 相生 · 相剋 원리가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경복궁의 풍수적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보염승이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조선 전기부터 계속되었다.²¹ 비보염승을 통해 경복궁을 명당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朝鮮王朝實錄』등의 기록을 통해 실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²² 『경회루전도』에서도 비보염승을

²¹ 『太宗實錄』十三年 六月 十九日(丙寅)條; 『世宗實錄』十五年 七月 二十一日(壬申)條; 『世宗實錄』十五年 七月 二十一日(壬申)條 등 참조; 김현욱 · 김두규 · 김용기 공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양의 비보풍수에 관한 연구』, 『韓國庭苑學會誌』20호, 韓國庭苑學會, 2002.

²² 金鉉勛, 『朝鮮王朝實錄에 의한 한양의 입지와 도성관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pp. 65-107.

적용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²³ 이러한 노력들은 경복궁의 입지가 풍수상 완벽한 明堂은 아니었지만, 비보염승을 통해 明堂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용례이다.

월대 난간석주상 배치원형과 그 위치가 맞지 않는 동물은 경복궁의 풍수적인 단점을 비보염승하기 위해 이동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擇里志』에 의하면 한양 풍수의 결점으로 ‘內水口가 낮고 虛하며, 앞쪽에는 冠岳이 강을 隔하고 있지만, 역시 너무 가깝다.’라고 하였다.²⁴ 다시 말해 震方(동쪽)이 낮고, 內水口가 열려 있어 虛하다는 것이다.²⁵ 水口를 裨補하기 위해서는 주로 假山이나 연못을 조성하였다. 假山의 역할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假山은 도성 水口안 혼련원 동북쪽에 있다. 하나는 물 남쪽에 있고, 하나는 물 북쪽에 있는데, 흙을 쌓아 산을 만들었으니, 地氣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²⁶

이의 假山을 조성한 예는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²⁷ 개국 초부터 계속되었던 水口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裨補의 한 형태였다. 假山이나 연못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상징조형물을 통하여 裨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영남지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⁸ 왕의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때문에 假山이나 연못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조형물을 이용한 裨補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난간석주상의 이동은 상징조형물을 이용한 裨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土의 기운을 가진 소가 ‘木剋土’의 원리를 적용하여 동쪽(木)으로 이동시켜 수구를 닫는 상징적인 역할을 통해 한양을 명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소가 ‘木’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서 호랑이는 자리를 잃게 된다. 호랑이가 소의 자리에 오게 되면 四神像의 백호와 중복되고, 五行 중 ‘木’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가 ‘土’ 자리에 오면 ‘木剋土’라는 相剋이 된다. 이렇게 되면 ‘土’의 기운이 감소되어 오행상생의 의미가 쇠퇴된다. 호랑이가 소의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五行相生의 원리인 ‘木生火’를 이용하여 호랑이를 ‘火’의 자리에 이동시켰을 것이다. ‘木’의 기운을

23 이상해 · 조인철, 앞의 논문, pp. 49 - 50.

24 李重煥, 李翼成 譯, 『擇里志』(乙酉文化史, 1969), pp. 228 - 230.

25 姜煥雄, 『朝鮮初期의 風水地理思想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26 『新增東國輿地勝覽』京都 上 “... 在都城水口內訓練院東北一在水口南一在水北築土爲山似畜地氣 ……”.

27 『世宗實錄』三十年 三月 八日(癸巳); 『文宗實錄』二年 三月 三日(丙申); 『成宗實錄』十六年 一月 八日(辛卯)

28 최원석, 앞의 책(2004), pp. 315 - 329.

가진 호랑이가 '火'의 자리에 오면 '火'를 생하게 하는 厭勝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뱀은 '火生土'라는 상생원리를 이용하여 '土'의 자리로 이동되었을 것이다.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의 배치원형은 역리와 음양오행을 적용한 배치였을 것이다. 하지만 개국 초부터 문제되어 온 경복궁 풍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보염승의 원리를 적용하여 배치가 변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裨補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에서도 五行相剋原理는 비보에 동일하게 응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비보형태는 중국과 다르게 민속신앙물과 상징조형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난간석주상에도 적용되어 소·호랑이·뱀의 자리 이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치형식은 음양오행사상과 풍수지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I. 난간석주상의 종류와 양식적 특징

1. 난간석주상의 종류

난간석주상의 크기는 30~40cm 내외의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안정감 있는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각 동물은 신격화나 추상화되지 않고 일반적인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을 머리에 집중시켰고, 그 밖의 신체는 부수적으로 표현하였다. 난간석주상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사신상류, 동물상류, 해치상, 서수상으로 구분하였다.

四神은 神獸로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형상화하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사신상의 머리 부분은 코와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왔고, 몸통의 외곽선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처리하였다. 사신상은 동물상에 비하여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데, 온 몸을 비늘로 덮고 있거나 귀갑문이나 깃털로 장식하는 등 각 동물의 특징을 머리와 몸통에 집중시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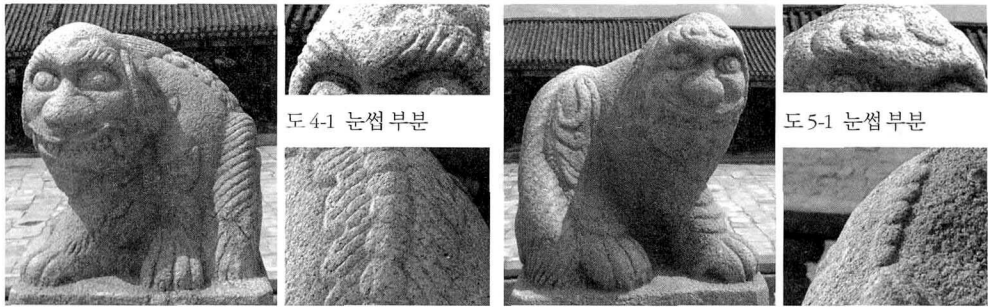
월대에는 쥐, 소, 호랑이, 토끼, 뱀, 말, 양, 원숭이, 닭 등 9가지 종류의 동물상이 있다. 각 동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머리 부분에 집중하였고, 몸통은 간략하게 표현하였으며, 머리를 틀어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형태로 앉아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해치상은 하월대 남계에 있는데, 머리 뒤에는 뿔이 하나 있고, 온 몸을 비늘로 덮고 있다.

꼬리는 화염형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으며, 다리에는 靈氣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서수상은 상·하월대 간방에 배치되어 있다. 이 像은 獬豸像, 獅子像 등으로 해석되지만 도상적으로 판단하면 두 동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서수상으로 분류하였다.²⁹

서수상은 세부표현에 있어 다른 상들과 달리 장식적인 요소가 보이는데, 월대 동쪽상과 서쪽상이 각각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우선 동쪽 상은 눈썹이 양각으로 표현된 여의두문의 형태이며, 서쪽 상은 음각으로 표현된 사선형이다. 또한 동쪽상은 등 부분을 연주문 형태의 돌출 돌기로, 서쪽상은 연주문 돌출돌기 옆에 사선형의 갈기가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양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도 4·5).



도 4 상월대 서남 서수

도 4-2 등부분

도 5 상월대 동남 서수

도 5-2 등부분

2. 난간석주상의 양식적 특징

난간석주상의 양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재료의 마모상태와 양감의 표현, 하엽동자석과 대좌의 형태 등을 분석하여 구양식(창건)과 신양식(재건)으로 구분하였다. 구양식 상의 경우 동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반면 신양식의 경우 추상화된 단순한 미감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

²⁹ 월대 간방에 배치되어 있는 像은 해치상과 사자상 등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두 동물의 특징적인 표현이 이 像에 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해치의 기본적인 도상은 앞에서 언급하였고, 해치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 지 않았기 때문에 해치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자상은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불교 건축물, 조각품, 회 화작품에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미술품에 등장하는 사자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갈기의 표현이다. 대부분의 갈기는 나선형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이 像은 직선형의 머리 갈기로 표현되었고, 등 부분의 돌출돌기가 있어 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³⁰ 조은정, 앞의 논문(1997), pp. 191 - 203에서 재인용.

는데 표면의 팽만한 양감에도 불구하고 몸체에서 절제된 표현력이 감지된다고 하였다.³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난간석주상의 양식에 집중하여 양감의 차이, 신체 외곽선과 면의 형태, 조각 기법 등 세부 표현까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난간석주상을 분석하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난간석주상의 양식적 차이는 조선시대 기년작 동물상과의 비교, 근정전의 창건 및 재건 시점 등을 고찰하여 편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I양식에 해당하는 난간석주상은 상월대 청룡, 상월대 현무, 상월대 서향 주작, 상월대 남계 동향 말, 상월대 북향 뱀, 하월대 쥐, 하월대 북향 소, 하월대 북향 토끼, 하월대 원숭이, 하월대 양, 하월대 북향 닭, 하월대 남계 해치, 상월대 동남 서수 등이 있다.



도 6 상월대 북향 청룡



도 7 하월대 동향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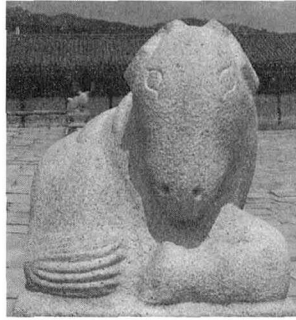
도 8 하월대 북향 원숭이

I양식은 몸통 전체에 표현된 풍부한 양감이 특징이다. 상월대 북향 청룡의 몸통 부분, 하월대 동향 말의 머리 부분에 표현된 풍부한 양감은 난간석주상을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다. 신체 외곽에 흐르는 곡선화 경향은 강한 탄력과 부드러움을 교차시켜주고 있다(도 6). 하월대 동향 말의 머리와 다리 부분(도 7), 하월대 북향 원숭이는 머리와 어깨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신체 외곽선의 곡선화 경향이 보이며, 몸통 전체에 각진 면을 최대한 줄이고 곡면화시켜 표현하였다(도 8). 풍부한 양감과 외곽선의 곡선화 경향은 각 상들의 자세에도 영향을 주어 머리를 틀어 고개를 움직이고 있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생동감이 넘치도록 표현되었다. 신체 각 부위에 표현된 얼굴, 다리, 날개, 비늘, 깃털 등의 세부표현에 있어 조각의 깊이가 깊고 뚜렷하여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

II양식에 해당되는 난간석주상은 상월대 남향 백호, 상월대 동향 주작, 상월대 남향 뱀, 하월대 남향 토끼, 하월대 남향 소, 하월대 서향 호랑이, 하월대 남향 닭, 하월대 남서 서수 등



도9 상월대 남향 백호



도 10 상월대 남향 소



도 11 하월대 남향 닭

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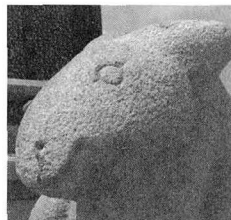
Ⅱ양식 특징은 Ⅰ양식에 비해 몸통에 양감이 축소되었고, 몸통 부분을 평면화시켜 표현하여 상 자체의 경직화 경향이 보인다. 상월대 남향 백호의 몸통과 다리 부분(도 9), 상월대 남향 소의 몸통 부분은 양감이 축소되어 상 자체의 평면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도 10), 이러한 특징은 머리를 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에도 영향을 주어 경직화된 형태로 표현되는 등 Ⅰ양식과는 다른 Ⅱ양식만의 특징이 보인다. 신체 외곽에 흐르는 선은 Ⅰ양식에 비해 직선화되었는데, 상월대 남향 소의 등과 엉덩로 이어지는 몸통의 외곽선, 하월대 남향 닭의 꼬리 부분에 표현된 직선화 경향은 Ⅱ양식의 특징이다(도 11). 신체 각 부위에 표현된 얼굴, 다리, 날개, 비늘, 깃털 등의 세부표현에 있어 Ⅰ양식에 비하여 조각의 깊이가 얇아 평면적이고 형식화되어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상월대 남향 닭의 날개 부분과 깃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난간석주상은 양식적 특징에 따라 Ⅰ양식과 Ⅱ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상월대 주작, 하월대 닭, 하월대 토끼를 중심으로 두 양식의 차이를 고찰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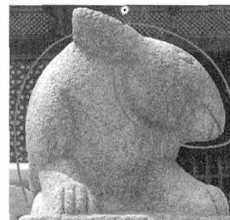
첫 번째, Ⅰ양식과 Ⅱ양식에서 보이는 양감 차이를 살펴보면 Ⅰ양식인 북향 토끼는 얼굴 전체에 양감이 풍부하며 얼굴 외곽 면이 곡면화 되었지만(도 12), Ⅱ양식인 남향 토끼는 Ⅰ양식에 비하여 얼굴 전체의 양감이 축소되었는데, 특히 턱 부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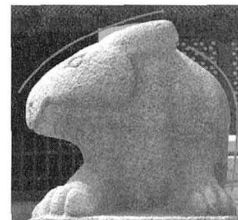
도 12 하월대 북향 토끼



도 13 하월대 남향 토끼



도 14 하월대 북향 토끼



도 15 하월대 남향 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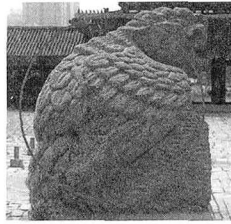
두 번째, 신체 외곽선의 양식적인 차이가 확인된다. I양식인 북향 토끼는 몸통과 얼굴의 외곽선이 곡선형으로 탄력감 있게 표현되었지만(도 14), II양식은 남향 토끼는 I양식에 비하여 몸통과 얼굴의 외곽선이 직선화되어 전체적으로 경직화된 형태이며, 특히 턱 부분의 직선화 경향이 두드러진다(도 15). 이러한 특징은 하월대 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I양식인 북향 닭은 벼슬과 꼬리부분이 자연스러운 곡선형이지만(도 16), II양식인 남향 닭은 I양식에 비하여 직선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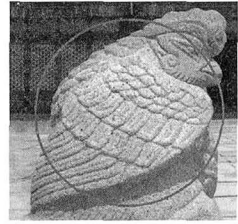
도 16 하월대 북향 닭



도 17 하월대 남향 닭



도 18 상월대 서향 주작



도 19 상월대 서향 주작

세 번째, 세부표현에 있어 양식차이가 보인다. I양식인 서향 주작의 날개와 벼슬 부분이 조각의 깊이가 깊어 입체적이며 탄력감 있지만(도 18), II양식인 동향 주작은 I양식에 비하여 조각의 깊이가 얇고 평면적이며 경직화되었고, 깃털 표현의 형식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도 19). 발가락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서향 주작은 새의 발가락처럼 양감이 풍부하여 입체감 있고 사실적이지만, 동향 주작은 I양식에 비하여 양감이 축소되어 평면화 경향이 보이며 발가락 사이와 마디를 형식화시켜 표현하는 등 차이가 확인할 수 있다. I양식인 북향 닭은 꼬리와 목 부분은 조각의 깊이가 깊고 입체적이지만(도 16), II양식인 남향 닭은 I양식에 비하여 조각의 깊이가 얇고 평면적이며 형식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도 17). 또한 북향 닭은 몸통의 각 부분을 하나의 구조물로 자연스러운 곡선의 형태로 연결하여 사실감 있게 조각하였지만, II양식인 남향 닭은 등과 날개부분이 계단처럼 직각의 단을 이루는 형태로 I양식에 비하여 형식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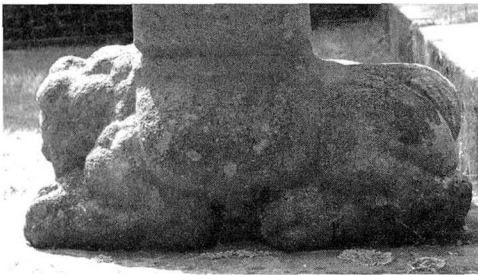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신·구양식의 구분은 본고에서 I양식·II양식과 차이를 보이는데, 구양식뿐만 아니라 신양식에 해당되는 특징도 대부분 I양식의 난간석 주상에서 보이는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난간석주상의 제작시기

난간석주상의 제작시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월대 석조물 일식을 경복궁 재건 당시의 작품으로 보는 의견과,³¹ 구양식에 해당하는 상을 조선 전기, 신양식에 해당하는 상은 조선 후기로 편년하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양식을 대표하는 몇 개의 동물상에 대한 편년은 제시하였지만 월대 각 상의 편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³²

본고에서는 난간석주상의 양식분석을 통해 분류된 두 개의 그룹을 조선시대 기년작인 靑龍寺 獅子石燈(1394), 會巖寺 雙獅子石燈(1407), 會巖寺 출토 獅子像(조선 전기), 조선후기 기년작인 北水門 石物(1796), 광화문 獅豸(1867), 皇穹宇 石物(1899), 高宗卽位四十年稱慶紀念 碑殿(이하 고종기념비전) 石物(1902), 東廟 石物(조선 후기) 등과 비교하여 제작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 기년작인 청룡사 사자석등, 회암사 쌍사자석등, 회암사 출토 사자상은 몸통 전체에 양감이 풍부하고, 신체 외곽선은 곡선화 경향으로 보이며, 몸통에 각진 면을 최대한 줄이고 몸 전체를 곡면화 시켜 표현하는 등 난간석주상의 I양식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청룡사 사자석등의 다리 부분에 풍부한 양감과 세부표현에 있어 조각의 깊이가 깊어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고(도 20), 회암사 출토 사자상의 다리 부분에 보이는 신체 외곽선의 곡선화 경향은 난간석주상의 I양식에 해당되는 주요한 특징이다(도 21).



도 20 청룡사 사자석등, 1394년



도 21 회암사 출토 사자상, 조선 전기

³¹ 난간석주상을 경복궁 재건 작품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난간석주상이 재건 시에 다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랫동안 폐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보존 불가능한 것도 많았을 것이며, 그런 것을 보충하기보다는 아주 불길한 구 건물은 모두 없애버리자는 의도 하에 전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김원룡, 앞의 책, pp. 238~245.

³² 조은정, 앞의 논문, pp. 191~203.

조선 후기 기년작인 복수문 석물, 동묘 석물, 황궁우 석물, 고종기념비전 석물은 II양식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II양식의 작품들은 I양식에 비하여 몸통과 다리 부분에 양감이 축소되어 표현되었는데, 복수문 석물(1796)의 몸통과 다리 부분(도 22), 동묘 석물(조선 후기)과 고종기념비전(1902) 석물에서도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양감의 축소로 인하여 자세는 경직화되었으며(도 24), 몸통 외곽면의 평면화 경향 등은 난간석주상 중 II양식의 특징과 동일하다. 동묘 석물의 등과 엉덩이로 이어지는 몸통의 외곽선은 직선화되어 표현되었는데(도 23), 이러한 특징은 상월대 남향 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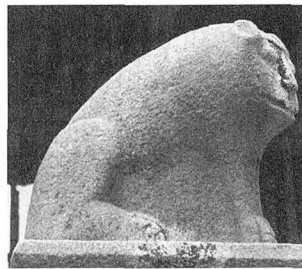
난간석주상의 기본 형태에서도 조선 전기와 후기 작품에서 차이를 보인다. 월대 난간석주상은 정육면체로 돌을 다듬은 후 동물상을 조각하여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거의 일정한 형태이지만, 조선 후기 기년작인 복수문 석물, 동묘 석물, 고종기념비전 석물 등은 가로가 긴 직육면체 형태의 돌로 다듬은 후 동물상을 조각하여 몸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된 형태로 정육면체의 난간석주상과는 구분된다. 월대 난간석주상은 조선 후기 기년작과의 제작기법 차이로 보아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경복궁이 창건되었던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 22 복수문 석물, 1796년



도 23 동묘 석물, 조선 후기



도 24 고종기념비전, 1902년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I양식은 조선 전기, II양식은 조선 후기로 편년할 수 있다. 이 구분을 경복궁의 창건 및 재건 시점과 연결하면 I양식은 경복궁이 창건되는太祖(1392~1398)부터 開京에서 漢陽으로 환도한 후 경복궁 수리 및 경회루를 중건하는太宗代(1400~1418), 법궁 체제가 완비되는 世宗代(1418~1450)까지의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소실되었지만 월대는 재료의 특성상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당시 從軍僧 是琢의 『朝鮮日記』에는 왜군이 한성에 입성한 직후에 경복궁을 직접 답사한 내용을 통해 경복궁의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교각 좌우에는 돌사자 네 마리가 다리를 지키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는 돌을 다듬어 담을 쌓았는데 높이가 여덟 자이고 귀퉁이마다 방향에 맞추어 네 마리씩 열여섯 마리의 돌사자가 놓여 있다 …….³³

현재 영제교 규모나 구조로 볼 때, 위의 내용처럼 다리의 御道 사방에 열여섯 마리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석상의 숫자로 본다면 근정전 월대나 경회루를 보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⁴ 이 기록으로 보아 고종대 경회루가 재건될 당시 재료의 특성상 난간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남아 있던 석물은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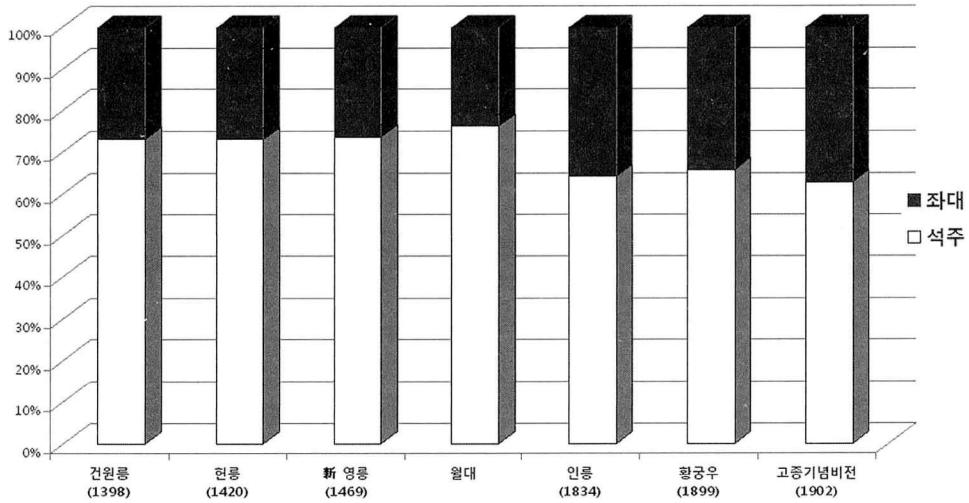
Ⅱ양식은 경복궁이 재건되는 高宗연간(1863~1907)의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임진왜란에 의해 소실되었던 경복궁은 복원되지 않고 270여 년간 폐허로 남아있었다가 고종연간에 재건되면서 파괴되거나 분실되었던 난간석주상의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때 보수된 Ⅱ양식의 난간석주상은 남아있던 Ⅰ양식 작품을 모본으로 제작하여 형태는 동일하지만 양식까지 재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난간석주상의 제작시기를 편년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어 주목된다. 난간석주의 석주와 좌대의 비율이 조선 전기와 후기가 차이가 있는데, 조선 전기인 建元陵(1398)과 獻陵(1420)은 석주와 좌대가 7 : 3 정도의 비율이지만 조선 후기인 仁陵(1834), 皇穹宇(1899), 고종기념비전(1902)은 6 : 4 정도의 비율로 제작되었다. 난간석주의 전체 높이는 120 ~ 130cm로 전·후기의 크기 차이가 별로 없지만 석주와 좌대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데, 후기로 갈수록 좌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2). 월대 난간석주의 경우 석주와 좌대가 7.5 : 2.5 정도의 비율로 조선 전기에 가깝다. 난간석주와 난간석주상이 한 돌로 제작된 월대의 경우 석주와 좌대 비율로 편년해보면 경복궁 창건 당시에도 난간석주상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³³ 是琢, 『朝鮮日記』“… 橋之左右 安置石獅子四匹而令護橋 基中央以削石 疊垣八尺 置石獅子於艮巽乾坤隅者 四四十六疋矣 ……”.

³⁴ 허균, 앞의 책, pp. 33~34.

표 2 석주와 좌대의 비율



V. 맺음말

지금까지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근정전은 조선시대 최고의 궁궐인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270여 년간 폐허로 남아 있다가 高宗代에야 재건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근정전의 기반부 역할을 하는 月臺는 재료의 특성상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복궁 관련 영건도감의궤류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경복궁의 창건이나 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난간석주상의 배치문제 역시 조선 전기의 사회상과 경복궁의 입지, 전체 전각의 배치와 연관하여 陰陽五行思想과 裨補厭勝을 적용하여 배치원리를 고찰해 보았다. 사신과 십이지가 방향에 맞게 배치되었다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경복궁 전체의 조영원리였던 역리와 음양오행을 월대 난간석주상의 배치에도 적용하여 배치원형을 추정하였으며, 현재 배치로 변화된 이유를 경복궁 풍수의 단점을 비보염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배치는 조선만의 독창성이 표출된 것으로 조선의 건국이념이었던 성리학이 건축물에 반영된 예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의 양식 분석을 통해 I양식과 II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조선시대 기년작과의 비교를 통해 난간석주상을 편년하였다. I양식은 경복궁이 창건되고 법궁체

제가 완비되는 태조~세종연간의 작품으로 추정하였고, II양식은 경복궁이 중건되는 고정연간의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월대 난간석주상의 배치의 사상적 배경을 경복궁 전체의 건축원리인 성리학에서 찾아보았는데, 성리학 원리가 미술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에 대한 用例의 제시를 본 연구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난간석주상은 배치원리의 독창성, 작품에 표현된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인상은 한국적인 미감을 충실하게 반영한 작품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석조물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key words)_景福宮(the Gyeongbok Palace), 勤政殿(the Geunjeongjeon Hall), 月臺(Stone step), 欄干石柱像(Stone statues on parapets), 陰陽五行思想(the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裨補(Supplement), 四神(Four Guardian God), 十二支(The 12 Earth's Branches), 動物像(Animal statues)

■ 투고일 2010년 8월 25일 | 심사개시일 201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2011년 5월 25일 ■

참고문헌

『景福宮昌德宮內上樑文』

『慶會樓全圖』

『宮闕志』

『東國輿地勝覽』

『入學圖說』

『朝鮮王朝實錄』

『擇里志』

『漢京識略』

김남일, 『고려말 조선초기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景仁文化史, 2005.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 1973.

대한건축학회편, 『한국건축사』, 기문당, 199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1995.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2004.

허균, 『(사료와 함께) 새로 보는 경복궁』, 한림미디어, 1995.

기전문화재연구원, 『楊洲 檜巖寺址 4次 發掘調査』현장설명회자료 11, 2001.

경기도박물관, 『會巖寺』, 2003.

文化財廳, 『勤政殿 實測調査報告書』上·下, 文化財廳, 2000.

文化財廳, 『慶會樓』, 文化財廳, 2000.

姜煥雄, 『朝鮮初期의 風水地理思想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金鉉勛, 『朝鮮王朝實錄에 의한 한양의 입지와 도성관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李康根, 『景福宮에 관한 建築史의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金東旭, 『慶會樓, 朝鮮建築과 周易의 原理』, 『건축문화』10호, 건축문화사, 1985.

金元龍, 『李朝石獸彫刻』, 『郷土서울』13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3.

- 김현옥·김두규·김용기 공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양의 비보풍수에 관한 연구」, 『大韓庭苑學會誌』20호, 2002.
- 이상해·조인철, 「경복궁 경회루의 건축계획적 논리체계에 관한 연구」, 『建築歷史研究』43권, 建築歷史學會, 2005.
- 趙恩廷, 「19, 20세기 宮廷 彫刻에 대한 小論」, 『한국근대미술사학』5호,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997.

국문초록

경복궁은 조선시대 法宮으로서 최고의 궁궐이었으며, 근정전은 正殿으로 경복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신하들의 朝賀를 받거나 政令을 반포하고, 때로는 사신을 맞아들이기도 하던 곳이다. 근정전의 기반부 역할을 하는 月臺는 2단의 석축 방형기단으로 외곽에 난간석을 두르고 있으며, 난간석 위에는 여러 가지 동물이 조각되어 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270여 년간 폐허로 남아 있다가 高宗代에 이르러 재건되었다. 하지만 월대는 재료의 특성상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난간석주상의 배치원리를 조선 전기의 사회상과 경복궁의 입지, 전체 전각의 배치와 관련하여 陰陽五行思想과 裨補厭勝을 적용하여 고찰해 보았다. 사신과 십이지가 방향에 맞게 배치되었다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경복궁 전체의 조영원리였던 역리와 음양오행을 월대 난간석주상의 배치에도 적용하여 배치원형을 추정하였으며, 현재 배치로 변화된 이유를 경복궁 풍수의 단점을 비보염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배치는 조선만의 독창성이 표출된 것으로 조선의 건국이념이었던 성리학이 건축물에 반영된 예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난간석주상은 양감, 신체 외곽선과 면의 형태, 조각기법 등의 분석을 통해 I양식과 II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경복궁의 창건 및 재건 시점과 조선시대 기년작과 비교하여 난간석주상의 제작시기를 편년하였다. 그 결과 I양식은 경복궁이 창건되고 법궁체제가 완비되는 태조~세종연간의 작품으로, II양식은 경복궁이 중건되는 고정연간의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근정전 월대 난간석주상에 표현된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인상은 한국적인 미감을 충실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석조물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난간석주상의 배치원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성리학적 원리가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에 대한 용례의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Stone Step Parapet Sculptures of the Geunjeonjeon Hall of the Gyeongbok Palace

Lee Sungjun *

The Gyeongbok Palace was the main royal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the largest and most sumptuous of the royal palaces of this dynasty. The Geunjeonjeon Hall, meanwhile, was the central edifice in this palace, used as the royal audience chamber where the king met with his court to discuss the affairs of the state or proclaimed an edict, or received state envoys from neighboring countries. Stone step, the two-tiered square stone platform on which the building rests, is surrounded with stone parapets, sculpted with images of various animals. The Gyeongbok Palace was destroyed in a fir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1592-1598), and was then left in ruins for subsequent 270 years. The palace was re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1863-1907). The stone step, however, is from the original construction, as this stone structure survived the fire.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arrangement of the stone parapet pillars of the Geunjeonjeon Hall, representing various animal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rrangement of the parapet pillars reflects considerations based on the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and the traditional geomantic principle known as "*biboyeomseung*," while taking also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Joseon society, the location of the Gyeongbok Palace and the overall distribution of buildings within this palace. This paper

* Curator of Gyeonggi Provincial Museum

argues that, contrary to the widespread belief that the Four Guardian Gods and animals related to the 12 Earth's Branches are placed in their standard order, their arrangement was influenced by the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which was the fundamental principle for the overall distribution of the Gyeongbok Palace. Meanwhile, the original arrangement of the parapet pillars was changed to the current one, this study argues, in order to remedy flaws in the geomantic disposition of the Gyeongbok Palace, following the principle of *biboyeomseung*. The Geunjeonjeon Hall's parapets, original in its style of arrangement, are also significant as an example of architectural integration of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the founding philosophy of the Joseon dynasty.

The parapet sculptures were divided into two styles, I and II, based on the feeling of volume, outlines of the body and planes and sculptural techniques. Meanwhile,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Joseon stone sculptures with known dates of creation, and basing the estimation on the dates of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Gyeongbok Palace, a chronological order was established for their dates of creation. Through these steps, style-I sculptures were dated to sometime between the reigns of Taejo (1392-1398) and Sejong (1418-1450), when the whole structure of the palace was completed and style-II sculptures to the reign of Gojong when the palace was rebuilt centuries later.

The sculptures of the stone step parapets of the Geunjeongjeon Hall, sober yet warm, faithfully embody the native aesthetic of Korea and deserve to be counted among the masterpieces of Joseon stonework. These sculptures are further distributed in a highly original manner, in an order not seen in neighboring East Asian countr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lights it casts on the architectural reflection of Neo-Confucian principles in this original stone edifice of the Joseon dynasty.